사상의학회지
J. of. Const. Med.
Vol.8. No.2. 1996.

東武 李濟馬의 學問思想

宋 一 炳*

Ⅰ. 序　論

1. 東武公의 生涯와 그의 著書

東武 李濟馬선생의 一生을 통해 그의 生涯를 크게 나누어보면 儒學者로서의 生涯, 醫學者로서의 生涯, 牧民官으로서의 生涯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東武公은 幼年期때에는 祖父의 사랑을 받고 자랐으며 천성이 쾌활하고 용감해서 개성이 독특하였다고 한다. 7세부터 伯父 直長公에게 通史를 배웠으며, 13세 때에는 鄕試에서 壯元을 하였다고 전한다.

평소 총명성을 바탕으로 經書를 通讀하고 易經에도 밝았으며 특히 武藝를 좋아해 그의 自號를 東武라 하였다. 그는 家出하여 의주부호 홍씨의 萬卷書를 閱覽하고 학자들로부터 국제정세나 學問思想에 대한 新知見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7세(癸亥年)에는 계룡산을 거쳐 남쪽으로 여행하였으며 30세 전후하여 함흥에 정평으로 가는 객사에서 芸菴 韓錫地가 지은 『明善錄』을 얻었으며 그후 그를 매우 존경하여 "芸菴은 朝鮮의 第一人者"라 칭찬했다고 한다.

35세(辛未年)에는 만주와 러시아를 여행하여 서양의 火龍船(기선)과 火輪砲(대포) 그리고 鐵絃(有線電信器)을 직접 목격하고 돌아온다.

39세(乙亥年)에는 武科에 등용되고 40세에는 武衛別選軍官에 入衛하여 武衛將軍이 된다.

44세(庚辰)에는 『格致藁』를 집필하여 57세(癸巳年)에 완성한다. (46세에 「獨行篇」을 완성하고 54세에 「儒略」을 완성하고, 57세에 「反誠箴」을 완성한다).

50세(丙戌年)에 鎭海縣監에 제수되고 54세에 진해현감에서 遞職된다.

58세(甲午年)에 『東醫壽世保元』을 완성하고, 60세(丙申年)에 崔文煥의 亂을 鎭撫한 공을 인정받아 宣諭委員에 제수되었고, 61세(丁酉年)에 高原郡守에 임명되고 62세에 遞職하게 된다.

59세(乙未年)에 『遺藁抄』를 著述하고, 61세(丁酉年)에 『濟衆新編』을 완성한 다음 64세(庚子年 9월 21일)에 金永寬의 집에서 돌아가셨다.

以上에서 그의 一生을 學問思想의 形成期와 結實定着期로 구분하여 본다면 어려서부터 자라서 40세(丙子年)에 武衛別選軍官에 入衛할 때까지를 그의 學問思想의 形成期로 볼 수 있고 40세부터 62세에 高原郡守를 遞職할 때까지를 學問思想의 結實(定着)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敎室

期라 할수 있다고 본다.

李濟馬이 살았던 시기는 朝鮮朝 後期로서 세도정치 속에서 三政의 문란, 신분제도의 변화, 民亂의 발생, 外勢의 침투 등 극심한 정치사회적 變革期로서 새로운 질서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종래의 봉건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적 기반이었던 性理學이 쇠퇴하고 實學思想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속에서 東武公은 먼저 『格致藁』를 지어 그의 儒學哲學을 四象類型的 입장에서 定立하고, 이를 바탕으로 『東醫壽世保元』을 지어 四象醫學을 創案하게 된다. 末年에는 『濟衆新編』이나 「廣濟說」을 지어 後學들에게 勸學 勸壽 勸善의 방향을 제시하여 牧民官으로서 儒學者로서의 所任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演者는 12月의 文化人物로 선정된 東武先生의 學問思想을 考察하기 위하여 그의 저서인『格致藁』『東醫壽世保元』『濟衆新編』및 『東武遺藁』에 담겨있는 그의 學問精神을 短見的 시각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다.

Ⅱ. 『格致藁』에 나타난 그의 哲學과 學問思想

格致藁는 東武公이 44세에 시작해서 57세에 걸쳐 13년만에 완성한 그의 철학서로서, 가장 먼저 집필을 시작한 「儒略篇」과 뒤에 집필을 시작했지만 제일 먼저 완성시킨 「獨行篇」,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反誠箴」으로 구성되어 있다.

1. 儒 略

儒略의 내용은 四象 즉 "事心身物"의 要約的 槪念을 通하여 기존의 性理學的 입장에서 추구하던 제반 문제와 哲學的 槪念들을 東武公의 四象要約方法으로 재해석하고 재규정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儒略의 첫머리인「事物篇」에서 "物宅身也 身宅心也 心宅事也"라 하여 事心身物의 상호관계에 대한 規定이 나온다. "心身" "事物" 즉 我와 他가 동시에 관계하는 것이 四象(事心身物)이다. 이러한 四象은 개인적(一)으로는 "止行覺決"로 社會的(萬)으로는 "居群聚散"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我와 他의 관계에서는 "大小遠近"의 關係를 갖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事心身物的" 설명 방법을 通하여 東武公은 儒略에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행위, 삶의 목적 등이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仁義禮智"와 "謹能慧誠" 그리고 "修齊 誠正 格致 治平"을 儒學에서 추구하는 기본 德目으로 보고, 그에 연관된 모든 개념들을 四象的 시각으로 재해석한다. 반면에 이러한 기본 덕목을 방해하는 요인을 "心慾"이라 보고 이를 역시 事心身物의 四象類型으로 분석하여 경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儒略의 내용은 그 내용에 있어서나 그 서술방식에 있어서나 기존의 性理學的 傳統과는 완전히 다른 東武公만의 독창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事心身物이라는 四象類型的 해석과 설명방법은 사물의 분화와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周易의 해석에서 "太極을 心으로 兩儀를 心身으로, 四象을 事心身物로, 八卦는 事心身物의 兩面性"으로 설명하고 있어 周易의 要約精神을 四象類型的 要約精神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과 설명방법은 그의 철학에서 뿐만 아니라 四象醫學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2. 獨行篇

「獨行篇」은 東武公의 나이 46세에 완성된 그의

여러 저술 중 가장 초기의 저작이다. 「獨行篇」은 주로 "知人"의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東武公은 「獨行篇」의 序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즉 "篇名을 獨行이라 한 것은 무슨 뜻인가? 好而知其惡하면 中立而不倚하고, 惡而知其美하면 和而不流한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獨行하게 되는데 獨行者는 不動心한다. 사람의 誠과 僞를 알면 不惑하고 不惑하면 正心하고, 正心하면 不動心하고, 不動心하면 遁世中庸而無悶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분석해보면 "中立而不倚, 和而不流→正心→不動心(獨行)→中庸"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治心正己의 궁극적 목표로 한다면, 그 출발점은 知人(사람의 誠僞를 알고 好而知其惡하고 惡而知其美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東武公은 知人을 위해서는 반드시 "誠身然後知人"이라 하여 誠身의 내용인 獨行이 知人의 조건이 된다고 하였으니 獨行이란 그 자체가 過程이자 目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獨行篇」에서 "사람은 惡人이라 할 지라도 누구에게나 仁義禮智의 衷心이 있고, 비록 好人이라 할 지라도 누구에게나 鄙薄貪懦의 陋慾이 있다."라 하여 인간을 性과 慾의 兩面性을 동시에 갖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한 사람의 마음에 君子之心도 있고 小人之心도 있다고 보고, "君子之心은 易知요 小人之心은 難知다"라 하여 어느 쪽이 많으냐에 따라 君子와 小人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결국 知人의 要諦는 仁義禮智의 性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鄙薄貪懦의 慾의 부정적 측면을 구분하여 파악하는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獨行篇」에서는 이러한 鄙薄貪懦의 心慾과 小人之心을 수십가지의 항목으로 열거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孟子」의 四夫(頑夫 懦夫 鄙夫 薄夫)를 끌어다가 鄙薄貪懦의 네가지 心慾으로 규정하고 「大學」의 正心을 방해하는 네가지 마음(忿懥恐懼 好樂憂患之心)을 동원하여 鄙薄貪懦의 심리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知人의 과정 중에서 규정한 心慾은 『東醫壽世保元』의 「四端論」에서 "人趨心慾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名曰鄙人, 棄義而偸逸者名曰懦人, 棄智而飾私者名曰薄人, 棄仁而極慾者名曰貪人이라"하며 "體質的 心慾論"으로 발전하고, "體質的 知人論" 즉 "四象體質論"을 정립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反誠箴

「反誠箴」은 東武公이 57才 되던 해에 『格致藁』에서 마지막으로 완성한 그의 철학저술이다. 「反誠箴」의 머리부분에서 "篇名을 反誠이라 한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오늘 늙도록까지 千思萬思에 詐心이 無窮하여 詐를 行하면 狼狽하고 더욱 더 困屈해지니 부득이 '反於誠而自警'케 함이다."라 하여 "誠"의 정신을 강조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八卦의 괘상을 임의로 假借하여 「乾兌箴」에서는 "中庸之道"를, 「坤艮箴」에서는 "大學之德"을 ,「離震箴」에서는 "整齊知行之術"을, 「坎巽箴」에서는 "平均財祿之權"을 중심으로 하여, 각각에 있어서 나타나는 "誠의 정신"을 四象類型的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反誠箴」의 마지막 부분에서 東武公은 "心身"을 관찰함에 있어서 "誠身敬身"과 "理心利心"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身之實理는 直行하기 때문에 前後는 있고 左右는 없는 것이다"라 하여 心身을 上下(前後)의 축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만일 身이 左右로 橫行하거나 心이 上下로 出沒함은 '私放逸慾'의 邪心이 작용하기 때문이니 '中庸'에서 擇하여 上下左右를 '允執闕中'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 中庸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中庸의 정신은 "反於誠而自警"함으로써 길러지는 것인데, 東武은 이를 孟子의 "存心養性"하고 "救放心"하는 "治心正己"의 정신을 通하여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詐心이 들어 詐를 行하면 이것은 詐가 된다. 그러나 詐心이 문득 생기더라도 詐를 行하기 전에 反誠하면 이것이 學問이다. 學問의 道는 다름이 아니라 '救放心' 하는 것일 따름인 것이다"라 하였던 것이다.

보통 東武公의 哲學思想을 한 마디로 要約한다면 儒學의 四象類型的 再解析에 따른 "知人正己"의 遂行思想이라 할 수 있다. 「反誠箴」에서는 주로 正己의 문제가, 「獨行篇」에서는 주로 知人의 문제가 다루어졌는데, 이러한 「反誠箴」에서 강조하고 있는 "治心正己" 정신은 四象醫學에서 "治心治病"의 정신과 "治心養生"의 정신으로 "醫學的 正己"의 내용으로 발전되고, 더 나아가 "生活的 正己"의 내용으로 실용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東醫壽世保元』에 담고 있는 그의 學問思想

1. 東武公의 哲學的 健康觀

東武公은 實踐的 儒敎精神을 기본으로 하여 인간을 自我의 責心 責氣가 중시된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그의 健康觀도 心慾을 극복하여 얻어지는 無慾의 狀態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욕심이 없는 마음이란 老子나 부처처럼 淸淨寂滅한 無慾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이 어질게 다스려지는지를 걱정하여 조금도 사사로운 욕심을 가질 겨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堯舜과 孟子의 "行仁"을 목표로,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學不厭而敎不倦"하는 仁의 정신으로 私慾을 극복함으로써 얻어지는 極公無私한 상태, 이러한 상태를 東武公의 哲學的 健康상태라 할 수 있다.

堯舜이나 衆人의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이 서로 다를 바 없지만 堯舜은 私慾에 가리워지지 않았으므로 耳目鼻口의 聽視言貌하는 기능과 肺脾肝腎의 學問思辨하는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는 데 반하여, 일반사람들은 사사로운 慾心에 가리워져서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이 제구실을 못하게 된다고 보아 私慾을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心慾상태는 육체의 생리적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말하고 이들 心身論的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사람의 私와 慾은 屈伸動靜(肉體)과 志意魂魄(精神)이 나온다고 보고 大人과 小人의 차이도 私慾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大人의 精神氣血은 深遠廣大하고 小人의 精神氣血은 淺近狹小하다고 보아, 耳目鼻口之用이 深遠廣大하면 精神氣血이 生成되지만 淺近狹小하면 精神氣血이 消耗된다고 말하였고, 學問思辨을 잘하여 肺脾肝腎의 작용이 正直中和하면 津膏油液이 充滿하게 되지만 偏倚過不及하면 津膏油液이 녹아버린다고 하였다.

이처럼 東武公은 肉體的 健康과 精神的 健康을 따로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心身을 하나로 묶어 心身一如的 차원에서의 健康觀이면서도 心우위의 측면을 견지하고 있다.

나아가 長壽하기 위해서는 簡約하고 勤幹하고 聞見하고 警戒해야 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서는 侈色酒食 權勢 財貨를 삼가야 한다고 하면서 妬賢嫉能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하여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健康도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결국 東武公의 健康觀은 유학정신을 바탕으로하여 私慾을 극복함으로써 얻어지는 心性論的 健康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心의 健康상태가 곧 肉體的 生理的

健康으로 직결되는 心身論的 健康觀을 나타내고 있으며 더불어 社會的 健康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2. 體質的 知行과 四象醫學의 治療精神

東武公은「性命論」에서 사람은 責心責氣의 노력의 정도에 따라 心體之淸濁과 氣宇之强弱이 결정되고 인격의 등급이 정해진다고 보았고 知行의 修不修에 따라 人性의 善惡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責心을 통하여 存心養性의 知를 쌓고 責氣를 통하여 修身立命의 行을 닦으면 道德의 경지에 이르고 道德을 쌓으면 仁聖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여 "下學而上達"의 정신을 제시하였고, 모든 知行의 행동은 我自爲心과 我自爲身의 "自律的 知行"을 통한 性命의 완성이 東武公 人性論의 목표라 할 수 있다.

한편「四端論」에서 "喜怒哀樂의 暴動浪動이 모두 '行身不誠'과 '知人不明'에서 나온다"고 하여 喜怒哀樂의 갈등이 모두 知行의 不備에서 온다고 보고 四象人의 體質的 知行을 통하여 暴動浪動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일 喜怒哀樂의 暴動浪動을 조절하지 못하면 "哀怒相成"하고 "喜樂相資"해서 太陽人이 忿怒激外하고, 少陽人이 悲哀動中하고. 太陰人이 侈樂無厭하고, 少陰人이 喜好不定하게 되는데 이러한 性情의 偏急現象이 한 번 나타나면 이를 회복하는데 십년이나 걸린다고 하였고, 이것이 生死와 壽夭에 큰 관건이 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四象人의 체질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四象人의 肺脾肝腎의 大小에 따른 上下升降의 偏在性을 극복하기 위한 喜怒哀樂의 中庸的 조절 방법이요, 둘째는 四象人의 心性的 偏在現象을 偏倚過不及의 입장에서 中庸의 방향으로 心慾의 闊狹을 조절하는 방법이요, 셋째는 四象人에서 人事의 能否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酒色財權의 中庸을 통한 己物의 입장에서 內外的 균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肉體的 中庸, 心性的 中庸, 社會的 生活의 中庸을 통한 四象人의 건강유지 방법과 치료정신을 제시하고, 이를 총괄하는 四象人의 知行的 조절 방법을 말하고 있다.

즉 頷臆臍腹과 頭肩腰臀에 담겨있는 四象人의 忿心과 忿行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太陰人에게는 驕心(知)과 侈心(行) 경계하고, 少陰人에게는 矜心(知)과 奪心(行)을, 少陽人에게는 奪心(知)와 慢心(行)을 太陽人에게는 伐心(知)과 竊心(行)을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와같이 頷臆臍腹의 知가 잘 이루어지면 耳目口鼻의 用이 深遠廣大하여 精神氣血이 生하게 되어 好善을 잘하게 되고 頭肩腰臀의 行이 잘 이루어지면 肺脾肝腎의 用이 正直中和하여 津膏油液이 充實하게 되어 惡惡을 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四象人의 知行的 조절은 생리적인 건강의 유지 방법임은 물론이고 도덕적인 好善惡惡의 윤리정신에까지 관여된다고 보았고 "妬賢嫉能 天下之多病也, 好賢樂善 天下之大藥也"라하여 四象醫學은 四象人의 知行調節을 통한 治心治病하는 治療醫學이라 말할 수 있다.

Ⅳ. 『遺藁抄』에 담긴 그의 學問思想

東武公이 59세(乙未年)에 지은 『格致藁』의 遺藁의 내용으로, 그간 『格致藁』에서 다 말하지 못한 그의 철학정신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는 言行과 人己 즉 말과 행실 그리고 남과 자기의 문제에서 先後의 순서를 제시하여 그의 철학적 수행방법을 말하고 있다. 그는 말과 행실에는 그 순서가 있으니 말이 행실을 앞서서는 안되고, 또한 남(人)과 자기

(己)에도 그 순서가 있으니 남(人)을 자기(己)보다 뒤로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欲心을 항상 과도하게 부리면 말(言)이 지나치게 되어 행실(行)이 뒤지게 되고, 利益을 너무 급급하게 하면 남(人)들이 나(己)보다 못미치게 되어 반드시 자기(己)쪽으로 치우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言行을 닦고자 하면 욕심을 삼가해야 되고, 남과 자기(人己)를 이롭게 하자면 반드시 이익을 고르게 해야 되는데, 이익이 고르게 되면 道가 公平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存心養性을 통해 마음 속에 욕심을 삼가면 言보다 行實이 먼저 正大하게 되고, 修身立命을 통해 修身이 되게 되면, 利益이 고르게 되어 己보다 人을 앞세우게 되니 남을 반드시 널리 구제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利益과 理致에 정밀하니 道平天下하고 欲心과 義理에 專一하니 修德一身한다."고 말하고 "道平天下"는 곧 知命이요, "修德一身"은 곧 樂天이라고 말하여, 言行과 人己의 실천으로 知命樂天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그의 철학에서 궁극의 목표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在昔聖人이 至情告我하시니 我思聖人하여 遂至于今호라"하여 그의 철학적 완성이 옛날 聖賢이신 孔子 孟子의 儒學精神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Ⅴ. 『濟衆新編』에 담긴 그의 學問思想

東武公은 61세(丁酉年)에 高原郡守로 재직하고 있을 때 『濟衆新編』을 저술하였다. 이는 水東社 莊粮里의 童蒙契에 보낸 勸學問으로, 「五福論」에서 "人生의 至樂이 다섯가지가 있으니, 첫째 長壽(壽)이고, 둘째는 마음이 아름다운 것(美心術)이고, 셋째는 讀書를 좋아하는 것이고, 넷째는 家産이고 다섯째는 行世이다."라고 말하고, 인생의 다섯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長壽를 누리지 못하면 마음이 아름답다하더라도 이익이 없고,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고, 책을 읽지 않으면 家産이 있다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고, 가산이 없으면 行世한다하더라도 실속이 없다."라고 하여 다섯가지의 목표에서 先後의 가치기준을 제시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준 것이다.

그는 "모든 病이 心火에서 생기는 것이니 누구나 하루 세끼를 적당히 먹고서, 만나는 일에 따라 잘 적응하여 지나치게 心火를 쓰지 않으면 長壽를 누리지 못할 리가 없다."고 말하고, 인간의 禍福은 모두 지기자신이 불러 들리는 것이며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역시 자기자신에 달려있다고 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長壽를 누려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독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美心術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家産이 없다하더라도 讀書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行世하지 못했다하더라도 家産이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하고 말하여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가는데 心火와 葛藤을 줄이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東武公은 勸壽論에서 "嬌奢 懶怠 偏急 貪慾이 사람의 수명을 줄이게 되는 요인이 되고, 簡約 勤幹 警戒 聞見이 사람의 수명을 늘려주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이들 8가지의 요인이 모두 酒色財權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居處, 行身, 用心, 事務 즉 "人事"의 修不修와 인간의 壽夭를 모두 酒色財權의 中庸精神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는 인간 생활환경을 구분하여 山谷之人, 市井之人, 讀書之人, 農畝之人으로 나누고 "山谷之人이 有聞見者 高壽하고, 市井之人이 有簡約者 高壽하고, 讀書之人이 有警戒者 高壽하고, 農畝之人이

有勤幹者 高壽니라"하여 사람의 직업과 환경을 구분하여 勸壽方法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같이 東武公은 酒色財權의 中庸精神과 사람의 직업과 환경의 적응정신에서 勸壽論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東武公은 「知行論」에서 "아는 것(知)은 마음(心)으로 알고 행(行)하는 것은 몸(身)으로 행한다. 또한 마음은 放蕩해서는 안되는 것이니 放蕩하면 知에 손실이 있고, 몸은 偸逸해서는 않되는 것이니 偸逸하면 行에 손실이 있다"고 말하고 "그 마음이 放蕩한 사람은 愚人이고, 그 마음이 從容者는 知人이고, 그 몸이 偸逸者는 不肖人이고, 그 몸이 敏强者는 賢人이다."라고 말하여 知行의 기준에 의해서 知人 賢人 愚人 不肖人을 나누고 있다.

그는 또한 "知에는 大知小知가 있고 行에도 大行小行이 있는데, 知에는 大小知를 겸할 수 있고 行에도 大小行을 겸할 수 있어야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편안하게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中道를 얻으면 大行小行이 모두 善行이 되고, 中道를 얻지 못하면 大小行이 모두 惡行이 된다."고 하여 知行이 大小를 겸하고 中道를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집이 가난한 사람이 땔나무를 하고 논밭을 경작하면 과연 中道로서 善行이 되겠지만, 만약 衣冠을 바로하고 起居를 단정히하여 몸가짐만 가다듬고 닦는다면 中道를 얻지 못하여 도리어 惡行이 되고 만다."고 하였다.

반대로 "몸이 존귀한 사람이 衣冠을 바로하고 起居를 단정히 한다면 과연 中道로서 善行이 되지만, 만약 땔나무를 하고 논밭을 경작하여 道路에 분주히 다닌다면 中道를 얻지 못하여 도리어 惡行이 되고만다."고 말하여 그 사람의 위치나 신분에 따라 中道의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보고, 생활인의 현실적 입장에서 知行論을 해석하고 있다.

Ⅵ. 『東武遺藁』에 담긴 그의 學問思想

『東武遺藁』 筆寫本이 1995년 최초로 박윤희 원장에 의해 발굴된 이후, 앞으로 東武의 生涯와 學問의 연구에 많은 실마리를 제공하리라 본다. 『東武遺藁』의 글에는 31編의 글이 필사본으로 적혀 있으나 4編은 東武의 것이 아니고 타인에 의해 쓰여진 글이고, 나머지 27編중 15編은 글이 쓰여진 연대가 기록되어 있으나 16編은 연대를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있다. 이들 내용중 10編의 詩賦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鎭撫時上疏」「答中川祐順書」「上大臣書」「陳情」「孝悌論」「丁酉元山港問答」등 6編이 時局을 걱정하고 국가와 백성을 위한 牧民官의 牧民精神을 찾을 수 있는 글들이다.

「上大臣書」는 東武公 나이 61세(丁酉年)에 金炳始大臣에게 올린 글로 富國强兵을 말하고 있다. 즉 조정의 高官要職에서 小人을 몰아내고 君子를 기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一國의 軍政이 단지 銀錢만 중시할 뿐 저마다 私情에 따라 처리하고, 一國의 官政이 단지 고식적인 계책을 옳다고 여겨 저마다 친분에 따라 움직인 체 국가의 大計는 도외시하고 요행히 틈을 타 名利를 챙기기에 급급하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니겠읍니까?"라고 말하고 "仁義를 쓰지 않고 단지 銀錢만 쓰며, 權衡을 쓰지 않고 단지 고식적인 계책만 쓰면 참으로 곤란하고 위태롭다고 하겠읍니다."라고 말하고, 어진 宰相과 덕망있는 將帥가 필요하다고 그는 쓰고 있다.

「陳情」은 새로 부임한 道觀察使에게 그 지역의 실정을 보고한 내용이다. 東武公은 내용에서 "대저 士農이라면 四民(士農工商)의 으뜸으로 內政을 닦고 外敵을 물리치는 큰 綱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있어서는 士農이 백성에 끼치는 병폐가 심합니다."라고 말하고 "옛날의 선비는 백성을 도왔는데 지금의 선비는 백성에 해를 끼치고 있어, 문자

를 배웠지만 고루함을 면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먼저 私智를 부리려 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고 "고관대작들에게는 아첨하고 의지할데 없는 백성들을 착취하니 그 폐해가 장차 어떠하겠읍니까?"하여 선비가 백성의 병폐가 되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근절할 것과 농민을 구제할 방법으로는 還穀을 蕩減할 것을 陳情하고 있다.

「孝悌論」에는 東武公이 薪山社 鄕約契의 跋文으로 쓴 鄕約論이다. 내용은『孟子』의 「梁惠王章句上」에 나와 있는 "5畝의 宅地에 뽕나무를 심으면 70세된 노인이 비단 옷을 입을 수 있으며, 개 돼지 닭 따위의 가축을 기름에 새끼칠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면 50세된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100畝의 田畓에 농사철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몇식구의 집안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으며, 학교의 교육을 신중히 하여 孝悌의 의리로서 되풀이 하여 가르친다면 머리가 반백인 사람이 도로에서 짐을 이고 지지 않게 될 것이다. 70세된 사람이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굶주리지 않게 하고서도, 그리하고서도 왕노릇하지 못할 이는 없다"라고 인용하여 이는 孟子의 鄕約이며 兵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와같이 孟子는 孝悌의 鄕約을 한 나라에 가르치려 했는데 지금 나 "東武는 後唐統의 鄕約을 한나라에 시행하고자 하면서 孝悌로 根本을 삼으니, 참으로 孟子의 무리가 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國防의 方法을 孝悌의 根本精神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또한 孝悌의 정신을 말할 수 있는 東武公 자신은 孟子의 後學으로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여 그의 학문정신이 孟子에서 비롯되었음을 스스로 밝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Ⅶ. 總括 및 考察

東武公은『格致藁』의 「儒略」에서 儒學에서 추구하고 있는 基本德目과 그에 연관된 모든 개념들을 "事心身物"의 四象類型的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상유형적 해석과 설명방법은 기존의 性理學的 傳統과는 다른 독창적인 방법이다.

즉 太極的 설명방법인 主理論이나 兩儀的 설명방법인 主氣論의 입장을 탈피하여 四象的 입장에서 儒學을 再解析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東武公은 「儒略篇」에서 知人의 方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心을 性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東武公은 心慾을 설정하여 性과 慾으로 크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心을 仁義禮智의 性과 鄙薄貪懦의 慾으로 나누어 君子之心과 小人之心으로 설명하고 이를 知人의 방법으로 이용하여 있는데 知人의 과정 중에서 규정한 心慾은 뒤에 "體質的 心慾論"으로 발전하고 "體質的 知人論" 즉 "四象體質論"이 나오게 된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東武哲學에서 知人의 문제는 "愛人 惡人"에서 나왔고, 이는 "好人 惡人"의 문제와 "好善 惡惡"의 문제로 발전되고 있는데, 東武公은 이를 "喜怒哀樂의 中和"와 "自反恒戒"의 中庸정신과 "治心正己"의 방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東武公은 「反誠箴」에서 "詐心이 문득 생기더라도 詐를 행하기 前에 反誠하면 이것이 學問이다. 學問의 道는 '救放心'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여 正己의 方法을 제시하고 있다. 東武公은 正己의 방법을 中庸의 治心精神과 孟子의 "存心養性"하고 "救放心"하는 "治心正己"의 精神에서 구하고 있는데, 東武公의 哲學思想에서 중요한 과제는 知人正己의 遂行精神임을 알 수 있다.

「反誠箴」에서 강조하고 있는 "治心正己"정신은 四象醫學에서 治心治病의 "醫學的 正己"로, 『濟衆新

編』에서 "生活的 正己"로 발전되어 實用化 되었다고 할 수 있다.

東武는 『東醫壽世保元』에서 人間은 自我의 실천을 위하여 自律的으로 責心責氣하여 知行을 쌓고, 心慾을 극복하여 無慾狀態에서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孔孟의 行仁精神에 도달하는 것이 儒學精神의 目標라 말하고 있다. 이러한 仁의 儒學的 精神을 바탕으로 私慾을 극복함으로써 얻어지는 極公無私한 상태를 東武公의 哲學的 건강상태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耳目鼻口之用이 深遠廣大하면 精神氣血이 生하고, 肺脾肝腎의 작용이 正直中和하면 津液油液이 充滿하게 된다고 하여, 心의 건강상태가 육체적(생리적)건강으로 직결되는 心身論的 健康觀을 제시하고 있다.

東武公은 「四端論」에서 "喜怒哀樂의 暴動浪動이 모두 '行身不誠' '知人不明'에서 나온다"고 하여, 喜怒哀樂의 갈등이 모두 知行의 不備에서 온다고 보고 이를 四象人의 體質的知行을 통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四象人의 體質的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四象人의 肺脾肝腎의 大小에 따른 上下의 偏在性을 극복하기 위한 喜怒哀樂의 中庸的 조절방법, 둘째 四象人의 心性的 偏在現象을 극복하기 위한 偏倚過不及의 調節精神, 셋째 四象人에 따른 人事의 能否를 극복하기 위하여 酒色財權의 中庸精神을 제시하고 이를 충괄하는 四象人의 知行的 조절방법을 말하고 있다.

즉 太陰人에게는 驕心과 侈心을, 少陰人에게는 矜心과 奪心을, 少陽人에게는 心과 懶心을, 太陽人에게는 伐心과 竊心을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四象人의 知行的 조절방법은 생리적 건강의 유지방법은 물론이고 道德的인 好善惡惡의 윤리정신까지 관여된다고 보아, 四象醫學은 四象人의 知行調節을 통한 治心治病의 治療醫學이라 말할 수 있다.

東武公은 이제까지 『格致藁』에서 知人正己의 哲學的 遂行精神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59세에 『遺藁抄』를 지어 다시 구체적으로 그의 哲學的 遂行方法을 말하고 있다. 즉 "言行"과 "人己"의 순서에서 말이 행실을 앞서서는 안되고, 남을 자기보다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言行을 닦고자 하면 欲心을 삼가해야 되고, 나보다 남을 먼저하자면 이익을 고루게 해야 하는데, 이익이 고루게 되면 道가 公平하게 되어 남을 반드시 널리 구제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東武公은 言行과 人己의 실천방법을 통하여 道平天下하는 知命의 경지와 修德一身의 樂天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그의 哲學的 궁극의 目標임을 말하고 있다.

東武公은 이제까지 그의 四象哲學의 완성이 옛날 聖賢이신 孔子 孟子의 原始哲學精神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東武公은 "人間의 禍와 福은 모두 자기자신이 불러들이는 것이며 人間의 壽夭도 모두 자신에 달려있다"고 보고, 평소 사회생활속에서 "社會的 正己"를 통하여 心火의 갈등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와같이 社會的 正己를 통한 心火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五福論的 價値觀의 생활과「知行論」에서 제시하고 있는 "知行의 中道精神"을 들어 설명하고 이것을 濟衆精神으로 삼고 있다.

『東武遺藁』에 담겨있는 東武公의 牧民精神속에는 지도계층에 있는 선비들의 現實參與 정신을 강조하고, 私情과 枯息이 통하지 않는 仁義와 權衡이 구현되는 國政精神과 孝悌가 반영되는 鄕約精神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그의 牧民官으로서 62세까지 선비의 현실참여정신을 실천한 그의 愛民精神을 찾을 수 있다.

Ⅷ. 結　論

以上에서 밝혀진 東武公의 學問思想을 아래와 같이 要約할 수 있었다.

첫째 東武公의 哲學思想을 한마디로 要約한다면 儒學의 四象類型的 再解析에 따른 "知人正己"의 遂行思想이라 할 수 있다. 「反誠箴」에서는 주로 正己의 문제가 「獨行篇」에서는 주로 知人의 문제가 다루어졌는데 이러한 「反誠箴」에서 강조하고 있는 "治心正己"의 정신은 四象醫學에서 "治心治病"의 "醫學的正己"로 『濟衆新編』에서 "生活的正己"로 實用化되었다고 본다.

둘째 東武公의 健康觀은 實踐的 儒學精神을 바탕으로 하여 私慾을 극복함으로써 얻어지는 心性論的 健康을 重視하면서 同時에 心의 健康상태가 곧 肉體的 生理的 健康으로 直結되는 心身論的 健康觀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더불어 사는 社會的 健康도 함께 提示하고 있다.

셋째 東武公은 人性論에서 責心을 通하며 存心養性의 知를 쌓고, 責氣를 通하여 修身立命의 行을 닦으면 道德의 경지에 이르고 道德을 쌓으면 仁聖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下學而上達"의 정신을 제시하고 있고, 모든 知行의 行動은 "自律的知行"을 通한 性命의 완성이 東武公 人性論의 目標라 할 수 있다.

넷째 四象醫學의 治療精神은 四象人의 知行調節을 通한 生理的 健康의 유지는 물론이고 道德的인 好善惡惡의 倫理精神에 까지 관여된다고 보고 있어 治心治病하는 治療醫學이라 말할 수 있다. 다섯째 東武公은 『遺藁抄』에서 "先行後言과 先人後己"의 순서를 새로이 제시하여 哲學的 修行方法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實學的 儒學精神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東武公은 이제까지 그의 四象哲學의 완성이 옛날 성현이신 孔子, 孟子의 原始儒學精神에서 비롯되어 직접 자기에게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고, 그 중에서 孟子의 治心正己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일곱째 東武公은 "社會的正己"의 방법으로 "五福論的 價値觀"의 生活과 "酒色財權"의 中庸的調節 精神과 知行의 中道精神을 들어 이를 濟衆精神으로 삼고 있다.

여덟째 東武公의 牧民精神속에는 儒學의 實學精神과 선비의 現實參與精神을 볼 수 있고 愛民精神을 찾을 수 있었다.

以上에서 12月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東武 李濟馬 先生의 學問思想을 通하여 그의 生涯를 본다면, 가정적인 불우한 환경과 사회적으로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儒學哲學의 새로운 경지를 定立하고, 이를 바탕으로 醫學을 새로이 創案하여 自己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積極的인 儒學의 "修己治人 精神"을 한평생 實踐하신 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